

# 한국-미국, 셰일가스 투자협력 강화

## 홍석우 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 투자규모 커 기회 많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월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새로운 천연가스로 주목받는 셰일가스(Shale Gas)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미국 투자협력포럼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홍석우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 6일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셰일가스 부분 협력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며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셰일가스는 미국 경제를 흔드는 큰 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기업들도 우리의 투자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북미산 셰일가스를 들여올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는 셰일가스 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낙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본 외에도 투자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우 장관은 이어 최근 전력 수급관리 능력 부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력 공급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력 공급난이 벌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과거 수요 예측이 낙관적이었고 공급도 건설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에 700만-1000만kW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3년 여름 이후에는 당분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우 장관은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하면 전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기업경쟁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0>